

# 계층, 물질주의, 과시소비성향에 따른 혼례행동에 관한 연구

-결혼한지 5년 이내의 도시 중산층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 Impacts of Social Class, Materialism,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n the Marriage Behavior of Married Women in the Middle Class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김성숙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서병숙

Dept. of Home Education, Chungang Univ.

Lecturer : Sung-sook Kim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 Byong-sook Seo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관련연구 고찰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impacts of social class, materialism,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rientation on the burden of the marriage expense and it's affection to marriage life. The data were gathered in seoul and suburban area, from married women in the middle class.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we identified that according to the class variables(income and subjectively-perceived class) and the value orientation (materialism and conspicuous consumption orientation), the burden of marriage expense and it's affection to marriage life were different. These results assured the korean marriage culture were strongly influenced by materialism, conspicuous need, and social class.

#### I. 문제제기

우리 나라의 혼례관행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로 거론되어 왔으며 1969년부터 정부가 가정의례 준칙을 시행할 정도로 정부 주도적인 혼례문화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각종 조사연구<sup>1)</sup>에서 나온 공통된 연구결과로 비추어 볼때 한국의 혼례문화가 허례 허식적인 혼수관행과 의례로 인한 과소비와 상업주의에 편승한 상향된 호화사치풍조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으로 보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혼례문화 개선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혼례는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행사라는 특성과 일생에 한번뿐인 행사임으로 되도록 성대하게 예식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배경, 그리고 산업사회의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전통사회의 상류층에만 국한되었던 호화혼수 등의 병폐를 전국민이 공유하게 된 것도 이를 촉진시켰다.

호화혼수에 대한 원인규명에서는 의식면에서 물질주의적인 성향(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57.77; 김명나, 1998)이 지적되고 勢 과시(송보경, 1998)와 구별행동으로서의 결혼식 즉 허세, 자아도취, 타인에 대한 과시의 욕구들을 부추기면서 일종의 산업사회의 소비품목으로 변질된 결혼식의 의미(박혜인, 1998), 그리고 이에 편승, 강화하는 상업주의가 지적되고 있다.

혼례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혼례절차와 혼례비용의 측면으로 나뉘어 진다. 혼례절차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 변천과정과 의미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혼례비용조사는 일반적인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외에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최근어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례행동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고자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혼례행동의 객관적인 측면인 지출비용보다는 주관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혼례행동은 개인적인 생활수준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이 과소비이고 문제가 있는 정도 인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례비용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은 혼례준비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전제하에 혼례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정도를 통하여 이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간접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다른 혼례행동의 주관적 측면은 혼례행동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행동이다. 혼례절차항목 가운데 어떠한 측면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혼례행동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혼례행동에 대한 계층 및 가치관의 영향 특히 물질주의와 과소비의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주된 연구문제는 계층관련 변수와 가치관 변수가 혼례행동의 주관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 변화가 혼례와 관련된 행동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실증함으로써 혼례문화의 개선에 있어서 혼례 가치관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비용지출의 부담 정도, 그리고 혼례절차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혼례행동의 주관적인 측면과 가치관, 계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사회계층과 혼례관행

사회계층에 따라 혼례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지표인 소득수준에 따른 혼례행동을 보면 몇몇 연구(김명나, 1989; 이정우·김명나, 1993)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조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예단의 대상 범위를 더 넓게 인식하였고 야외비디오 및 사진촬영의 적정 비용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합리적인 살림장만에 대한 의식이 높았고 호화예식장에

1) 최근의 것 가운데 전국적인 조사연구만을 열거해 본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6) 등이 있다.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장은영(199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친척예단을 많이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혼례의식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수입이 낮을수록 약혼식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이 높을수록 혼인식을 화려하게 치루겠다는 경향이 높고 일반예식장을 선호하였다(유현주, 1991). 그런데 김명나(1998)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혼례의식이나 혼례행동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선택, 약혼, 혼수장만 및 함들이, 혼인식(폐백) 및 신혼여행 등 하위영역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계층의 주관적 지표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혼례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IMF전후의 신혼기 남녀 혹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박혜인, 조은숙(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혼례비용의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예단비용, 예물비용, 신혼살림비용, 결혼식비용, 피로연비용, 신혼여행비용, 주택비용 모두에서 계층별 차이가 나타났다.

## 2. 물질주의, 과소비성향과 혼례행동

혼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를 혼례와 관련지어 해석한 예는 상당히 많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0, 1996; 김모란, 1994;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997; 소비자보호원, 1997). 특히 함들이, 과다혼수 등은 높은 체면의식과 물질지향주의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혼례행동에 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김명나의 연구(1998)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혼례의식의 근대성과 혼례행동의 합리성(배우자선택, 약혼식, 혼수장만 및 함들이, 혼인식 및 신혼여행 4가지 영역에 대하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배우자선택, 혼수 및 함에 있어서는 의식과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물질주의성향이 낮을수록 배우자선택에 대한 의식이 근대적이며 약혼식을 간소화하려고 하고 혼수나 함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편의를 중시

하였다. 그리고 물질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부모, 주위의 친지나 어른들의 영향에 의한 것보다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혼수장만이나 함들이 행사를 합리적으로 했으며 신혼여행을 간소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혼례행동에 내재해 있는 과소비욕구가 과소비로 표출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송보경(1998)은 오늘날의 결혼식 모습을 「사람을 마구 동원하고 호화 예식장을 사용하여 혼례를 치른다. 결혼식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부 또는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하였다. 서병숙 외(1997)의 연구에서는 혼인 5년 이내의 주부들이 혼인비용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한 요인으로 본인(집안)의 경제력, 배우자(집안)의 경제력, 사회관습을 지적하여 혼인비용 지출이 자신의 신념보다는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상류층의 결혼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사회 각 계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동경집단이론 즉 상류층의 결혼문화를 모방하여 상류층이나 출세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로 설명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소유물이나 소비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제력을 드러내어 부를 알려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가 미덕이 된 오늘날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타인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를 소비를 통해 충족시키려는 보상행동으로 볼 수 있다(성영신, 1998) 이러한 보상행동으로써 과소비행동은 남에게 잘 드러나는 결혼행위같은 특별행위(event)에서 표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한 다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조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혼례행동의 주관적 측면에서 결혼비용의 부담정도와 혼례절차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정하였다. 계층변수로는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선정하였고 가치관은 물질주의성향과 과소비성향을 선정하였다.

## 1. 개념의 정의 및 조사도구의 구성

### 1)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신혼기 여성 자신의 혼례절차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대한 주관적 인지정도로써 자신의 경제수준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혼례 전체비용과 혼례절차에 따른 세부항목의 지출수준에 대한 부담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문항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 1996), 김모란(1994), 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혼례전체비용과 세부항목으로 합들이, 예단, 신혼살림마련, 결혼예식, 신혼주택마련으로 구성하였다. 전체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세부적인 혼례항목비용의 부담정도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각 문항당 1점부터 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 2) 혼례항목지출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신혼기 여성 자신이 행한 혼례절차항목의 지출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써 혼례절차에 따른 각 세부항목에서의 혼례지출행동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문항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0, 1996), 김모란(1994), 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주된 혼례절차항목을 약혼식, 예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으로 구성하였다.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예단항목 제외)는 각각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

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각 문항마다 1점부터 5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한다. 예단항목에서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기타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3-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3) 소득수준

혼례관행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사회계층은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 본 연구는 중산층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혼례관행 분석이 타당하다. 소득수준은 객관적인 사회계층의 척도로써 조사당시의 조사대상자의 일년간 연평균 수입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척도는 연봉 1천만원 미만은 1점, 연봉 1천만원-2천만원 미만은 2점, 연봉 2천만원-3천만원 미만은 3점, 연봉 3천만원-4천만원 미만은 4점, 연봉 4천만원-5천만원 미만은 5점, 연봉 5천만원-7천만원 미만은 6점, 연봉 7천만원 이상은 7점을 부여하였다.

### 4)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계층의 주관적인 지표로써 자신의 지위가 사회계층의 어떤 위치에 속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하 1점부터 최상 9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5) 물질주의성향

물질주의는 물질적 소유나 소비를 행복의 주된 원천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성향척도는 송인숙(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5점부터 2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적 소유나 소비를 행복의 주된 원천으로 삼는 물질주의의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73이었다.

### 6) 과시소비성향

과시소비란 제품·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척도는 백경미(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각 제품, 서비스의 하위영역에서 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즉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그리고 일반영역에서의 과시소비성향을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는 5점에서 2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78이었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혼례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계층에 따라 혼례행동(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혼례절차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물질주의, 과시소비성향에 따라 혼례행동(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혼례절차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계층별로 물질주의, 과시소비성향과 혼례행동간의 상관관계가 다른가

##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결혼한지 5년 이내의 기혼여성(1993년-1997년 사이에 결혼)을 대상으로 얻어진 혼례관행 조사자료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혼례관행조사를 위한 면접은 연구자와 조사의 취지를 숙지한 대학원생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

역은 서울시와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과도한 혼인문화를 중산층이상의 문제로 파악하여 조사대상을 중산층이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적인 유의표집방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전문대졸 이상의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7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50명을 면접조사를 하여 질문문항의 미비한 점을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70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여 응답에 문제가 있는 질문지를 제외한 24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PC+ window형을 이용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백분율,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추후검정으로 scheffé-test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특성

남편의 연령이 20대 후반부터 30대 전반에 걸쳐 있었다. 연봉 2천만원 이하인 집단이 30%, 연봉 2천만원초과에서 3천만원이 40%, 연봉 3천만원초과도 30%정도 였다. 남편의 직종별로 볼 때 전문·관리직(기업주 등 포함)은 40%, 사무직이 28%, 자영업인·제조업자가 10%이고 생산 및 서비스직은 9% 정도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중산층이상이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일반적 경향

#### 1)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전체혼례비용과 각 혼례항목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웠는가라는 질문에서 전체결혼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응답한 사람이 62%로 자신의 경제수준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례비용의 과소비현상이 보편적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각 혼례항목비용의 부담정도를 보면 함들이기 비용은

〈표 1〉 조사 대상지의 일반적 성격

단위:빈도(%)

결혼지속 연수	1	76(30.8)
	2	58(23.5)
	3	48(19.4)
	4	35(14.2)
	5	30(12.1)
	계	247(100.0)
연소득	연봉2천만원이하	69(30.4)
	연봉2천초과~3천만원	91(39.6)
	연봉3천초과~5천만원	56(24.3)
	연봉5천만원 초과	13( 5.7)
계	229(100.0)	
남편의 연령	20대	73(41.7)
	30대	143(57.9)
	40대	1( .4)
	계	247(100.0)
남편의 직업	전 문 직	49(21.4)
	관 리 직	41(17.9)
	전문기술직	13( 5.7)
	사 무 직	65(28.4)
	대기업주, 자본가, 정부고위관리	4( 1.7)
	자영상인, 제조업자	22( 9.6)
	고용된 생산기능직 또는 서비스직	22( 9.6)
	가정주부, 무직, 학생	7( 3.1)
	기 타	6( 3.6)
	계	229(100.0)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함	108(52.7)
	취업안함	106(47.3)
	계	214(100.0)

30%정도, 신혼살림마련비용은 51%, 신혼주택마련비용은 38%, 신랑가족예단비용은 44%, 결혼예식비용은 59% 정도의 응답자가 부담스럽다고 하였다(〈표 2〉 참조). 신혼주택마련비용의 부담정도가 낮은 것은 응답자가 신혼여성으로 이들이 대체로 주택마련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혼주택마련에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25%나 되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은 결혼예식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으며 결혼예식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경우는 17%에 불과하여서 결혼예식에 결혼당사자들의 지출이 예상보다 더 컸음을 보여준다.

## 2) 혼례항목지출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혼례항목 가운데 약혼식, 예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지출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혼식의 경우 33%, 예단은 29%, 신혼살림마련은 54%, 신혼주택마련은 66%정도였다. 반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혼식의 경우 15%, 예단의 경우 8%, 신혼살림마련은 32%, 신혼주택마련은 21%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약혼식의 경우 결혼이후의 영향에 대해 약혼식을 했던 응답자 대부분은 '그저그렇다' 라는 평가(52%)를 하고 있었는데 약혼식을 한 경우가 30%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약혼식을 한 사람들은 경제수준이 높거나 꼭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좋

〈표 2〉 전체혼례비용과 혼례항목의 부담정도

단위:빈도(%)

	전체결혼비용	함들이기	신혼살림용품	신혼주택마련	신랑가족예단	결혼예식비용
매우 부담	20( 8.1)	2( .9)	4( 1.6)	15( 7.2)	4( 1.7)	12( 4.9)
약간 부담	133(54.1)	63(28.1)	121(49.2)	63(30.4)	104(42.1)	135(54.7)
보 통	44(17.9)	51(22.8)	56(22.8)	40(19.3)	68(27.5)	51(20.6)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39(15.9)	86(38.4)	49(19.8)	36(17.4)	40(17.3)	32(13.0)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0( 4.1)	22( 9.8)	16( 6.5)	53(25.6)	15( 6.5)	9( 3.6)
합 계	246(100.0)	224(100.0)	246(100.0)	207(100.0)	231(100.0)	247(100.0)
평 균	3.46	2.72	3.20	2.76	3.18	3.54

〈표 3〉 혼례설치항목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빈도(%)

	약혼식	예 단 <sup>+</sup>	신혼살림용품	신혼주택마련
매우 좋은 영향	5( 5.7)	13( 5.8)	5( 2.0)	24(10.7)
약간 좋은 영향	24(27.3)	52(23.2)	129(52.4)	103(45.8)
그저 그렇다	46(52.3)	141(63.0)	33(13.4)	50(22.2)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10.2)	15( 6.7)	70(28.5)	40(17.8)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4.5)	3( 1.3)	9( 3.7)	8( 3.6)
합 계	88(100.0)	224(100.0)	246(100.0)	225(100.0)
평 균	3.19	10.3	3.21	3.42

<sup>+</sup>예단의 척도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이들을 합한 값임. 따라서 점수의 범위가 3-15점임.

은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단의 영향평가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그저그렇다'고 응답해(63%) 많은 사람들이 예단에 대하여 보통수준의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예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6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27%로 나타나 예단의 영향에 대하여는 긍정적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단이 전통이기 때문에(응답자의 63%) 갈등예방을 위해서(15%), 남들도 하니까(8%), 시부모에게 잘보이기위해서(7%)<sup>2)</sup>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신랑가족이 예단을 기대하는 한, 예단의 영향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과도한 신랑가족예단 풍습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이한 점은 신혼살림마련과 신혼주택마련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부정적인 영향평가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즉 이 두 혼례항목에서 극단의 평가나 나온 셈이다. 응답자의 31%가 신혼살림마련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여 신혼살림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응답자의 21%는 신혼주택마련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살림이나 주택마련준비과정의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결혼준비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계층별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차이(연구문제 1)

### 1) 소득수준별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혼례

#### 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차이

소득수준에 따라 전체혼례비용의 부담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인 중산층을 소득수준별로 세 집단으로<sup>3)</sup> 구분한 뒤 혼례전체비용과 혼례항목비용의 부담정도를 분석한 결과 혼례전체비용과 신혼살림마련에서만 하위집단간 혼례비용의 부담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또한 추후검증을 한 결과 혼례전체비용에서 소득수준이 중상인 집단이 중중집단에 비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례항목가운데 신혼살림마련에서는 중상집단과 중하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집단이 혼례전체혼례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비용에서 부담

2) 예단이 신랑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기타시댁식구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좋은 영향을 미친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6%, 48%, 42%로 시부모와의 관계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도 각각 3.36, 3.51, 3.45).

3) 세집단의 구분을 위해 본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의 빈도분포와 중간값과 표준편차를 고려한 후 조사시기인 1997년의 월평균 가계소득 2,218천원(통계청 internet 자료) 임을 감안하여 상(연봉 3천만원 초과), 중(연봉 2-3천만원 이하), 하(연봉 2천만원 이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4〉 소득수준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차이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소득수준	전체혼례비용	합들이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결혼예식비용
중상이상	3,66(86) a	3,42(57)	3,36(80)	3,40(86) a	2,90(71)	3,56(86)
중중	3,34(91) b	3,25(59)	3,06(82)	3,12(91) a	2,80(80)	3,57(91)
중하	3,38(69) ab	3,33(45)	3,11(62)	3,04(69) a	2,54(56)	3,47(70)
F값	2,76*	.364	2,34	2,86*	.95	.22

\*p&lt;.05

〈표 5〉 소득수준에 따른 각 혼례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차이

혼례항목의 영향정도 소득수준	약혼식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중상이상	3,30(39)	10,54(80)	3,36(86)	3,66(80) a
중중	3,14(29)	10,53(82)	3,06(91)	3,37(82) ab
중하	3,31(20)	9,82(62)	3,22(69)	3,19(63) b
F값	.66	2,48	2,09	4,12**

\*\*p&lt;.01

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중상집단이 소득에 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소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혼례항목지출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약혼, 예단, 신혼살림마련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신혼주택마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5〉 참조). 소득수준이 중상집단의 평가가 중하집단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중상집단은 부의 상속수단으로 자녀의 신혼주택에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하집단의 경우에는 고가인 주택가로 인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신혼주택마련에서 하위집단간에 영향평가가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 2)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 정도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차이

자신이 어떠한 계층에 속하느냐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분항목에서 유의수준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sup>4)</sup>. 추후검증결과

혼례전체비용에서 중상계층은 중하계층보다 더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혼례항목에서는 예단에서만 하위집단간 부담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범위검증을 한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이상인 계층과 중중계층간에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혼례항목지출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약혼식, 예단, 신혼주택마련 항목에서 하위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신혼살림마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검증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상이상인 계층이 중하계층보다 예단, 약혼식, 신혼주택마련에 충당한 지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4) 주관적 계층의식의 급간구분은 평균(5.17)과 표준편차(1.47)를 고려하고 각 9점 척도의 빈도를 고려한 결과 자신이 중중계층(5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45%정도로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계급구분을 중하계층(4점이하), 중중계층(5점), 중상계층(6점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차이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주관적 계층의식	전체 혼례비용	합들이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결혼예식비용
중상이상	3.64( 69) a	3.38(45)	3.42( 65) a	3.29( 69)	3.00( 56)	3.54( 69)
중중	3.48(118) ab	3.25(80)	3.07(110) a	3.22(117)	2.72(102)	3.58(118)
중하	3.22( 58) b	3.46(35)	3.13( 52) a	3.02( 59)	2.60( 48)	3.44( 59)
F값	2.83*	.532	2.96*	1.31	1.31	.40

\*p<.05

〈표 7〉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혼례절차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차이

혼례항목의 영향정도 주관적 계층의식	약혼식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중상	3.55(31) a	11.02( 64) a	3.39( 69)	3.69( 61) a
중중	3.13(39) ab	10.14(108) b	3.15(117)	3.39(110) ab
중하	2.72(18) b	9.92( 52) c	3.09( 59)	3.17( 53) b
F값	5.95**	4.70**	1.86	3.87*

\*p<.05    \*\*p<.01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분석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중상계층이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에서 중하계층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반면 그것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상계층이 자원을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더 많이 느끼면서 혼례비용을 과도히 지출하는 것은 이러한 지출이 결혼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수준변수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보다 다양하게 집단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특히 예단항목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당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예단이 매우 사회적인 행위이며 사람들이 예단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때 계층의식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

### 3. 물질주의 및 과소비성향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과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차이 (연구문제 2)

#### 1)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과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차이

물질주의 성향에 따라 혼례비용의 부담정도는 대체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결혼예식비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참조). 그러나 다중범위검증 결과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과 물질주의성향이 낮은 집단간에 부담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한편 물질주의 성향에 따라 혼례항목지출이 결혼

5) 예단항목에 있어서 예단비용의 부담정도과 영향평가 모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예단의 하위영역, 즉 신랑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기타시댁식구와의 관계 모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값은 각각 4.08\*, 4.35\*\*, 3.16\*였다).

6) 물질주의 성향의 급간구분은 평균(16.45)과 표준편차(3.44)를 고려하여 mean±1sd를 기준으로 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8〉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물질주의 성향	전체혼례비용	합들이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결혼예식비용
상	3.60( 73)	3.43(47)	3.20(69)	3.22( 73)	2.95(62)	3.79( 73) a
중	3.46(105)	3.38(73)	3.22(99)	3.28(106)	2.82(93)	3.42(106) a
하	3.33( 66)	3.23(39)	3.05(61)	3.05( 65)	2.47(51)	3.48( 66) a
F값	1.30	.42	.67	1.19	1.98	3.18*

\*p&lt; .05

〈표 9〉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각 혼례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차이

혼례항목의 영향정도 물질주의 성향	약혼식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상	3.06(31)	10.36(67)	3.58( 73) a	3.55(71) a
중	3.36(36)	10.25(97)	3.15(106) ab	3.52(95) ab
하	3.10(21)	10.38(58)	2.88( 66) b	3.11(57) b
F값	1.15	.087	9.27**	3.88*

\*p&lt;.05 \*\*p&lt;.01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신혼살림마련과 신혼주택마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참조). 즉 물질주의 성향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신혼살림마련이나 신혼주택마련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약혼식이나 예단에 있어서는 본인의 물질주의 성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혼례비용지출 현상은 물질주의의 결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반면에 본 연구결과는 물질주의의 직접적인 관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에 따라 혼례의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반면 혼례행동의 합리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명나, 1998)와 어느정도 일치한다. 또 다른 원인은 물질주의 성향이 혼례비용지출부담에서는 미약한 영향을 미치지만 세부적인 혼례항목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혼례항목의 영향정도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신혼살림마련이나 신혼주택마련 등 결혼생활의 실용적인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신혼주택을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과도하게 마련하려 하고 대형 신상품 가전 제품이나 고가의 가구들을 선호' 하는 풍조가 특별히 물질주의와 관련된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sup>7)</sup>.

## 2) 과시소비성향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차이

사람들의 과시소비 성향이 혼례비용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면 〈표 10〉에 나와 있듯이 과시소비성향에 따라 혼례비용의 부담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례전체비용에 대하여 과시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꼈다<sup>8)</sup>. 세부적인 혼례항목 가운데 합들이, 예단, 신혼살림마련에서는 과

7) 물질주의 성향이 혼례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이 매개로 작용하여 혼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8) 과시소비성향의 급간구분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mean \pm 1sd$ 를 기준으로 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평균은 13.25, 표준편차는 4.09).

<표 10> 과소비성향에 따른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차이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과소비성향	전체혼례비용	합들이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결혼예식비용
상	374(65) a	330(39) ab	316(61) ab	326(65) ab	286(59)	349(65)
중	353(94) ab	358(71) a	333(90) a	341(94) a	277(78)	359(94)
하	319(85) b	304(40) b	299(78) b	292(85) b	269(68)	354(86)
F값	6.32**	4.07**	2.78*	6.12**	.27	.17

\*p< .05    \*\*p< .01

<표 11> 과소비성향에 따른 각 혼례절차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 차이

혼례항목의 영향정도 과소비성향	약혼식	예 단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
상	3.47(30)	11.00(59) a	3.55(65)	3.57(61) a
중	3.03(37)	10.22(87) ab	3.29(94)	3.56(84) ab
하	3.10(20)	9.97(76) b	2.86(86)	3.19(78) b
F값	2.32	4.05**	1.39	3.54*

\*p< .05    \*\*p< .01

시소비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신혼주택마련이나 결혼예식비용에서는 과소비성향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혼례전체비용과는 달리 합들이, 예단, 신혼살림마련 항목에서 과소비성향이 중간수준인 집단이 과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더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과시욕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비용지출에 대하여 그다지 큰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성향이 높은 집단은 실제적 과소비수준이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신의 합당한 행동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

과소비성향에 따라 부분적인 혼례항목지출의 영향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예단, 신혼주택마련에서 과소비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이들 항목의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과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집단이 예단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과소비성향이 이 혼례항목지출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표 8>과 <표 10>를 비교해 보면 물질주의가 혼례전체비용의 부담정도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반면 과소비성향은 혼례전체의 부담정도에 유의하게 관련됨이 나타났다. 세부적인 혼례항목비용에서는 물질주의는 결혼예식비용의 부담정도에서만 유의하였지만 과소비성향은 합들이, 예단, 신혼살림마련 항목의 부담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9>와 <표 11>을 비교해 보면 물질주의성향은 신혼살림마련과 신혼주택마련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과소비성향은 예단, 신혼주택마련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물질주의는 혼례항목가운데 실용적인 영역과 관련을 가지는 반면 과소비성향은 혼례항목 대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음 알 수 있다.

4. 소득계층별 물질주의 및 과소비성향과 혼례 행동간의 상관관계(연구문제 3)

본 절에서는 소득수준별 각각 하위집단에서 주관적 계층의식, 가치관과 혼례지출비용,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그리고 혼례항목지출이 결혼생활에 미치

는 영향간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여 혼례소비행동에서 물질주의와 과시소비성향이 일부 중상류계층이상에 국한된 현상인지 아니면 모든 계층에 만연된 현상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각각에서 상관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모든 소득계층에서 물질주의와 과시소비성향이 부분적 항목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표 12〉참조).

먼저 중상소득계층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혼례지출비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신랑측의 비용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주택비용지출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도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물질주의성향은 혼례비용과 그 부담정도와 그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살림마련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과시소비성향은 실제혼례비용과 혼례항목의 영향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과시소비성향과 주택비용의 부담정도간에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간소득계층을 보면, 주관적 계층의식은 전체혼례비용, 신랑측비용, 신부측비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졌고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에서는 예식비 부담정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 혼례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물질주의성향은 혼례비용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비용의 부담정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물질주의 성향과 혼례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과시소비성향은 혼례비용,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그리고 혼례항목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하소득계층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전체혼례비용과 약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약혼비용 부담정도와 함비용 부담정도에서 주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 주관적 계층의식과 혼례항목의 영향 정도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물질주의성향은 혼례비용, 혼례비용의 부담정도, 그리고 혼례항목의 영향 정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시소비성향은 혼례비용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에 약혼비용의

〈표 12〉 소득계층별 혼례행동과 계층의식, 가치관의 상관관계

	중상소득계층			중간소득계층			중하소득계층		
	계층의식	물질주의	과시소비	계층의식	물질주의	과시소비	계층의식	물질주의	과시소비
전체혼례비용	.378**	.044	.090	.324**	-.030	.155	.266*	.090	.205
신랑비용	.394**	.046	.118	.253*	-.090	.085	.204	.106	.174
신부비용	.226	.080	.065	.301**	.048	.217*	.131	-.047	.091
전체부담정도	.079	.217	.253*	.008	.191	.137	-.007	-.116	-.034
약혼부담	-.070	-.127	-.109	-.045	-.079	-.102	-.253*	-.084	-.358*
함 부담	-.034	-.036	.019	-.015	-.112	.112	-.280*	-.008	-.173
예단부담	.065	.111	.067	-.081	.141	-.056	.082	-.200	-.164
살림부담	.018	.186	.184	.104	.154	.121	-.051	-.125	-.096
주택부담	-.031	-.090	-.306*	.062	.240*	-.017	.101	-.222	-.027
예식부담	.198	.147	-.062	-.227*	.193	.044	.182	-.111	-.186
약혼영향	-.076	.007	.056	.159	-.107	-.134	-.098	-.166	.406**
예단영향	-.095	.092	-.227	-.142	-.134	-.170	-.234	.055	-.057
살림영향	-.109	.301*	.132	-.004	.145	.146	.069	-.033	-.038
주택영향	.247*	.145	.121	.205	.040	.154	.179	-.171	.001

\*p<.05    \*\*p<.01

부담정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약혼비용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각 소득계층별로 주관적 계층의식, 물질주의, 과소비성향과 실제 혼례비용, 그것의 부담정도, 그것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혼례관련 소비행동이 객관적인 경제수준을 통제 한 후에도 주관적인 지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계층별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상소득계층에서는 과소비성향이, 중간소득계층에서는 물질주의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그리고 중하소득계층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과소비성향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중간소득계층과 중하소득계층에서도 주관적 계층의식과 물질주의, 과소비성향이 혼례소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혼례소비행동에서 과소비성향이나 물질주의가치관이 단순히 중상계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산층 전반에 공통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혼례행동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실태와 이것의 계층과 물질주의, 과소비성향과 같은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결혼한지 5년 이내의 기혼여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과소비적 혼례문화를 중산층이상의 문제로 인식하여 조사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하였다. 혼례행동의 주관적 측면은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혼례항목지출이 결혼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한다면 우선 혼례비용의 부담정도와 영향평가는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물질주의와 과소비성향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혼례문화를 설명하는데 계층과 가치관이 중요한 관련요인임을 실증하였다. 계층에 따라 소유한 자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혼례소비행동에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혼례비용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계층에 따라 혼례비용의 차이는 심리사회적인 요소가 관련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담정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지출수준이 큰 것을 나타내며 과소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중상류층이 중하류층보다 혼례비용의 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혼례항목에서 소득수준은 신혼주택마련에서, 그리고 주관적 계층의식은 약혼식, 예단항목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신혼살림마련, 신혼주택마련과 같은 실용적인 항목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인 반면 과소비성향은 합틀이, 예단, 신혼살림마련 항목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소득계층에서도 혼례소비행동과 물질주의, 과소비성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상소득계층에서는 과소비성향과 물질주의가 혼례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중간소득계층에서는 물질주의가 혼례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중하소득계층에서는 과소비성향이 혼례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비록 부분적인 관련성만이 입증된 것이지만 중하소득계층에도 과소비적 혼례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과소비성향과 혼례행동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비교적 합리적 지출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혼례소비행동이 소득수준이외에 주관적인 요인(계층관련 변수에서도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서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혼례문화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의식의 제고가 시급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IMF 이후에 혼례소비가 보다 건전화되고 있으며 향후 결혼문화가 건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계층별로는 중상이하의 계층에서 혼례소비가 건전화되고 있으며 주로 예단이나 예물비용, 신혼여행에서 혼례

소비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의 신흥살림이나 신흥주택마련에서는 뚜렷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실리적인 경향을 보인다(박혜인·조은숙, 1998).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줄고 가용자금이 감소한 경제상황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가격하락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IMF이후에 소비행태가 고급이나 초저가 상품에 몰리고 중간제품이 붕괴하여 중산층붕괴와 함께 나타난 '소비의 양극화구조'와 일맥상통한다. 만약 다시 소득이 늘고 가용자금이 원활해질 때 건전한 소비문화가 지속될 것인가? 주관적 계층의식과 물질주의, 과소소비성향이 혼례소비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전국적인 자료에서 나타나는 다른 결과들에 의해 일반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물질주의가 다른 심리적 기제에 영향을 주어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추후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김득성(1996, 11월).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문제와 개선방향.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결혼문화발표회 자료집. 대구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 한국여성개발원. 37-64.
- 2) 김명나(1998). 도시주부의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신흥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박민자(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대 관행에 관한 연구. 이효재 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75-115.
- 4) 박혜인·조은숙(1998). IMF이후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대구시민에 대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 5)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서병숙·홍병숙·이윤금·김성숙(1997).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학술대회 자료집. 17-82
- 7) 선진영·정순희(1997).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결혼비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 8)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중독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실태 및 의식조사.
-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건전 혼례모델의 개발을 중심으로-.
- 11)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 혼례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 12)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비교.